

박양식

문화선교 보병과 세움 대표, 21세기 기독교

문화포럼 외무, 서강대와 서울신대 강사

경제위기 속에서의 교회의 대처

1. 머리말

인류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고통의 시대를 맞았다. 근대 이전에는 대체로 가뭄, 홍수, 전염병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생겨난 식량부족 사태를 겪거나 혹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정치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발발한 전쟁으로 인류는 극심한 고통의 시기를 견뎌내야 했다. 근대 이후로는 산업화와 시장경제구조로 인해 처하게 된 삶의 조건은 인류에게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의 시기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경제전쟁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경제가 인류에게 끼치는 고통의 문제는 단순한 빈곤의 문제만으로 국한시켜 다룰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현재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금융경제상의 어려움은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억압된 사회구조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외환이나 금융같은 경제체계 문제의 혼란이나 심화에서도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 당

사자로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 한국은 소위 IMF(국제통화기금)시대라고들 말한다. IMF시대라 함은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뜻한다. 자국의 금융경제난으로 인해 IMF의 돈을 빌려다 쓰면서 그 IMF의 경제지도 원칙에 따르게 되는데 그 결과 IMF의 지원을 받은 국가는 경제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고금리, 실업, 물가고 등의 어려운 경제난을 당분간 견뎌내야 한다. 이로써 나타나는 사회불안은 대단히 큰 것이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잇달아 자살하고, 실직한 가장들이 자살하고 있다. 공원과 지하도에서 신문지나 골판지 박스로 쉼을 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강도와 절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시대에 새삼 토인비(Arnold J. Toynbee)의 역사철학을 떠올리게 된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문명은 시련으로 다가오는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IMF시대에 적용하여 말하자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IMF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한국이 단기적이라도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는 것이 판가름날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이왕 들이 닦친 IMF난국을 잘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한국은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IMF를 잘 풀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각 분야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 그 방안 찾기가 실제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경제계이다. 이들은 자의 반 타의반으로 구조조정을 실천해 가고 있는 중이며 정부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거나 봉급의 삭감을 결의한 상태이다. 구조조정을 잘 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정치계, 사법계, 언론계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교회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임에 불구하고 안되는 곳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회계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교회도 내부적·영적 구조조정이

더욱 절실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난의 시대를 맞을 때 교회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무엇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오늘날 고난은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 고난 극복을 위해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간략하게나마 역사적 교훈을 찾아보 고자 한다.

II.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규명

역사상 경제위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인류를 위협해 온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직면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극복의 과정을 겪었다. 기독교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할 역사적 교훈은 그들이 어떻게 그 경제위기를 이겨냈는가라기보다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갔는가이다. 그것은 교회가 감당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반성으로 모아진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것은 경제위기를 경제논리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논리로 접근할 것이냐이다. 이 문제는 접근태도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경제위기의 도래에 대해서 근대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하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불황 내지 식량위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 가하는 징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학자들은 신앙과는 상관없이 생겨난 사회나 경제구조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기적 혹은 장기적 변동의 주기에 입각하여 경제위기를 진단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 되었다.

오늘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필자는 경제논리에 따른 접근과 신앙논리에 따른 접근을 동시에 시

도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태도는 양립적인 문제를 하나로 대충 몽둥그려 생각하지는 애매모호한 중립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역사 속의 사건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파악되는 부분도 있고 신앙의 관점에서 경제적 사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는 점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의 정립은 어떤 위기에도 당당히 맞서 이겨낼 힘을 제공한다.

경제위기가 주기적 변동에 따라 오는 것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역사 속의 사건은 자연과학에서처럼 법칙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징조없이 경제위기가 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1920년대 후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공황이다. 1차세계대전의 상처가 아물고 복구와 부흥의 결실이 예상되는 상황의 미국에서 1929년 10월에 뜻밖에도 증권의 대폭락을 시작으로 경제공황이 확산되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대공황의 타격은 막대하여 은행과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속출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도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대공황의 발생은 역사 속의 위기는 결코 예측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경제논리만으로 위기를 예견하고 극복해 낸다고 하는 주장은 그리 설득력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경제논리에 따른 처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삶의 의지를 표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원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간의 대응능력은 다름아닌 의지의 문제로 연결된다. 위기에 대처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의 표출은 여러 방면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경제위기에 대한 신앙적 해석과 실천에서 나온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가정에 대한 신념의 표현이 아니다. 그 믿음은 위기 시대에 새로운 역사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실재이다. 경제위기를 맞은 교회는 그런 믿음의 실재를 역사적 현실 속에 작동하도록 할 사명이 있다.

경제위기를 맞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단순하지 않다. 더욱이 경제위기가 경제변동의 주기에 따른 구조적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현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무턱대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을 기독교적 해석에서 배제하려는 접근태도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제논리와 신앙논리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특정위기를 돌파해 갈 수 있는 교회의 시대적 책임과 역할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III. 경제위기와 역사의 역동성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는 전반적으로 경제위기가 있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를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는 의미있는 역사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적절한 예로 17세기 위기에 직면하여 나타난 청교주의(puritanism)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이전 세기에 진행되어 온 경제위기의 추이를 아는 것은 17세기 위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4·15세기는 전반적으로 침체와 위축의 시기였다. 따라서 러너(Robert E. Lerner)는 서구인들의 통제를 넘어선 일련의 재앙을 맞이한 유럽의 14세기를 역경(adversity)의 시대로 규정하였다. 16세기에 들어서서 유럽은 전례없는 팽창과 호황을 누렸고, 자본주의 체제를 발아(發芽)시켰다. 그러나 17세기에 오면 다시 유럽은 불황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이른바 17세기 위기가 그것이다. 이런 17세기 위기는 유럽 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에서조차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 현상이었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이 위기는 학자간의 논란을 거쳐 16세기에 있었던 급격한 팽창과 호황에 대한 상대적 침체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위축이었다고 결론지음으로써 그 이전 세기의 위기와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런 17세기 위기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영국의 대표적 역사가인 홉스봄(E. J. Hobsbawm)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논의에 맞는 교훈을 찾아 보도록 하자. 17세기에 위기를 성격상 경제적 위기라고 규정한 홉스봄은 그 위기가 초래된 이유가 주로 자본주의의 충분한 발전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데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는 그 위기 자체가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경제적 집중'이라는 현상이 위기의 결과로 나타나면서 결국 스스로의 해결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17세기의 위기가 가져온 구 경제의 부분적인 몰락으로 말미암아 진보적인 신 경제의 출현을 현실화시켰다는 것이다.

홉스봄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17세기의 경제위기는 또 다른 경제체제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인간은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믿게 만든다. 그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역사가 움직여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면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친다면 역사는 그저 우연의 연속으로 흘러가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역사의 특정한 의미가 들어 있을 수 없다.

역사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해도 우리는 역사의 무의미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비그리스도인이라면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역사적 사건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역사의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역사 현상을 창출시킨다. 그 한 예로 청교주의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는 역사에 대한 의지 곧 교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

IV. 경제위기 시대의 청교도 신앙

청교주의는 특정의 역사적 실재이다. 그것은 17세기 위기 속에서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창출해 낸 역사적 산물이었다. 그들은 국교도가 가톨릭의 미신과 의식을 제거하지 못하고 가톨릭적 전승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런 불만은 신앙적 태도에 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위기를 맞아 확고한 신앙을 붙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청교도들은 종교적 체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국을 개혁하기 위한 의지를 실천에 옮겼다. 그들에게 증생이나 회심은 단순히 예배 의식이나 설교에서 나오는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체험된 실재였다. 청교도들의 개인적 체험은 개혁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자극하였다. 그들은 내부의 힘에 의해 압축된 용수철처럼 모든 장애물을 분쇄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독교적 미덕을 사회 속에 강하게 심어 놓았다. 그 결과 그들은 17세기 위기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정신이 강력해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였다.

청교도는 모든 의심을 누그러뜨린 채 자신이 선택된 그릇이라는 자각 가운데 생활 현장에 적극 뛰어들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노동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들은 강력한 힘의 원천과 질서의 원리를 자신의 내면 속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환경은 아무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기 확신에 몰두한 가운데 청교도 특유의 신조와 제약을 철저하게 적용하였다. 그들은 빈곤을 동정과 구제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불행이 아니라 단죄받아 마땅한 실패라 생각하였고, 부(富)를 남용될 수 있는 의혹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로 쟁취하여 보상받는 축복으로 보았다. 자기반성, 자기훈련, 자기절제라는 종교적 규율로 단련받은 청교도들은 수도원에서가 아닌 회계실, 시장 등지에서 승리를 얻음으로써 경제적 진보의 선구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역사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그들은 사회적 행위의 독자적 표준을 갖게 되었다. 청교도가 세워놓은 표준은

영국 사회에 상당히 잔존하고 있던 봉건주의적 요소들과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책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청교도들은 봉건주의적 요소를 약화시키고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권위주의적 국가정책을 전복시킴으로써 명예혁명을 일구어내고 상업문명을 일으켜 내놓았다. 청교주의는 위기 속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드러난 것이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오면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직면하여 종교적으로 확신한 신앙적 태도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발흥에 일조하였다. 청교도들이 신앙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행동은 시대를 변화시켜 새로운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격변의 시기에 갖게 되는 종교적 확신은 새로운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비록 비기독교인의 비난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존재에 관련한 놓을 수 없는 살아 있는 자의 숨이다.

V. 청교도운동의 한계

우리는 성공에서 찾는 역사적 교훈 보다는 실패에서 얻는 역사적 교훈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청교도의 성공만을 볼 때 우리는 자칫 신앙이상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보지 못한 채 성공 이데올로기에만 매달리는 자가당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교도들이 잘못된 부분을 거울로 삼아 경제위기에 올바른 삶의 태도를 확립해 가야 할 것이다.

청교도들은 실천주의와 개혁에 대한 거룩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실제로 체험한 것을 표현하는 데 억제할 수 없는 내적 강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자 그들은 스스로가 경계했던 오류 속에 빠

져들었다. 그들은 완전주의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그들의 완전주의는 인간이 스스로 신과 같이 높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종교적으로 위장해 놓은 것이자 스스로를 신으로 모시고자 하는 시도를 사악하게 신성시한 것이다. 이것은 성서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성서에서 완전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인간은 그의 유한한 조건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교도가 추구한 완전주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 앉아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의 일종이다. 청교도들은 자기신성화에 대한 열정 때문에 고난받는 자신을 경배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인간성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완전주의는 하나님을 경직시켜 버릴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 그 본성을 빼앗아 버린다. 즉 인간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다.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그 자체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다. 반대로 완전주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변증법을 뒤집어 버린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죄짓기 이전의 무죄성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이러한 완전주의는 무죄성이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청교도 공동체의 엄격성은 완전을 성취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결과였다. 이러한 청교도의 완전주의는 궁극적으로 유한한 인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청교도들 자신도 같은 죄인임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을 신격화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런 청교도의 위험은 나다니엘 호든의 소설 『주홍글씨』에 아주 잘 묘사되었다. 간음한 죄인인 헤스터에게 찍힌 A는 奸婦(adulteress)를 의미하기도 하고 천사(angel)을 의미할 수도 있다. 좀더 확장된 의미에서 "A"라는 글자는 아담 곧 헤스터 자신이 공범이나 동료의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래서 유한성의 무게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는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다. 요컨대, 경직된 종교성은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것 외에

는 아무 것도 남기지 않는다. 인간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V. 맺음말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역사의 의미를 인정하고 역사 속에서 작용하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역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역사와 싸움마저 한다. 역사의 사건이 우연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상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위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깊이 명심해야 할 점이다.

청교도의 예에서 발견되는 교훈은 경제위기에서 강화되는 신앙에 입각한 실천이 갈등관계에 있는 경제적·정치적 현실을 변혁시켜 놓는다는 사실이다. 좀더 일반화시켜 말하자면,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교회는 올바른 신앙에 입각한 실천을 통해서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야 할 수 있고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는 신앙에 근거한 사회적·윤리적 실천 규범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청교도들처럼 우리들도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신앙적 실천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모든 사건에 자의적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섭리와 결부시킬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역사의 진행이 그리스도인의 의도대로 가지 않고, 따라서 진리라고 생각되는 기독교적 관점도 아무런 의미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하기 쉽다. 그런 위기에 직면해서도 교회는 청교도들처럼 역사의 역동

성을 일으킬 확고한 신앙의 행동을 현실에 옮겨놓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거짓 위로로 사람들을 호도하거나 과도한 자기확신으로 완전주의의 위험을 지나침으로써 범하게 되는 과오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의 실패는 인격적인 실존과 반인격적인 객관화 작용과의 모순을 해결되지 못한 데서 일어난다. 따라서 교회는 역사의 기독교와의 적극적 관계를 잘 살피는 가운데 자신의 시대적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르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균형감각의 체득이 필요하다. 역사의 정방향을 지향할 수 있는 균형감각으로 교회는 어떤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시대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공정한 관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나종일, "17세기 위기론과 한국사," 『歷史學報』 94·95 합본(1982. 9).
- Aston, T., ed., *Crisis in Europe, 1560-1660* (London, 1965).
- Berdyeva, Nicholas A., 『문명의 실패와 인간의 운명』, 김영수 옮김 (현암사, 1984).
- Burrell, Sidney A., ed., 『서양근대사에서 종교의 역할』, 임희완 옮김 (민음사, 1990).
- Lerner, Robert E. *The Age of Adversity: the Fourteenth Century* (New York, 1968).
- Tawney, R. H.,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 김종철 옮김 (한길사, 1983).
- Vahanian, Gabriel, 『신의 죽음과 현대문학』, 변선환·고진하 옮김 (현대사상사, 1984).